

## 국내소식

### 환경부 2009년 녹색성장과 생활공감형 정책추진

환경부는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지난해 1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및 「4대강 살리기와 녹색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이 중점 보고·토의 되었다.

주제별 환경분야 정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제인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는 환경분야의 일자리 창출, 예산 조기집행,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환경규제 개혁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이 토의되었으며, 두 번째 주제인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방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추진정책 및 10대 녹색기술·산업 육성대책, 등 4대강 등 하천의 생태건강성 회복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 환경정책 2009년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정책 추진방향으로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설정하고, 녹색 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 및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통한 국민만족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생태관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며, 훼손된 국토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Clean Korea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율을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호시책이 제공되며 녹색일자리 창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자료 국제 인증 획득

환경부 소속공공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의 측정자료가 국제공인숙련도시시험운영기관(APG ; Analytical Products Group, Inc., 미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Laboratory of Excellence)”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APG 국제숙련도시시험에는 전세계 175개 분석기관에서 참가하였으며,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자동측정망 분야에서는 최초로 참가하여 받은 결과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현재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91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고를 계기로 '95년부터 설치하여 전국 주요 상수원 및 오염사고 취약지역인 49개소(한강 14, 낙동강 17, 금강 11, 영산강·섬진강 7)에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7개소를 추가하여 총 56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환경관리공단)는 이번 계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망 데이터의 공개를 위한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자동측정망이 수질감시뿐 아니라 수질측정 등 수계관리를 위한 역할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체내 중금속농도, 선진국보다 높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주대학교 연구팀과 실시한 제2차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 사업의 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중금속 수준에 대한 기준자료를 산출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환경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체내 납, 수은, 카드뮴, 망간 등의 농도측정과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인체내 중금속의 환경노출요인을 검토

하기 위해서 대기오염/토양오염/해안/일반도시로 나눠 4개 지역특성에 대한 표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해안과 토양오염지역에서 중금속 농도치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을 제외한 수은, 카드뮴의 경우에는 미국·독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지역적으로 인접한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보다는 혈액에서 수은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식습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오염 노출과 관련하여 거주환경, 생활습관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체내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중금속의 경우 망간을 제외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남성에게서 납과 수은, 여성에게서 카드뮴과 망간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흡연에 따라 유해오염물질의 농도가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의 순서로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보다 발전시켜 전체 국민들의 체내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감시와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오염에 민감한 취약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영향조사를 지속 실시해 흡사라도 있을 건강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와 함께 버스, 택시 등 75대 차량을 대상으로 신호대기 등 일정시간 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부착 사업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으로 인한 연료 절약 효과 등을 파악하고 장치부착이 시동모터, 배터리 수명 등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다.

그간 환경부는 시범부착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 사례조사(일본),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08. 5월~8월) 등을 실시하였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운행 거리가 길고 주·정차 횟수가 많은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부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일정시간 주·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출발시, 변속기 조작 등 간단한 조작을 통해 엔진을 재시동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부착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작차와 운행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급 초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 금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 대여서비스 실시

환경부가 실시한 「생활공감 환경정책 아이디어 공모」 심사결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근무하는 김지영씨(31세)가 제안한 "대형마트 장바구니 대여서비스"가 1위인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작지만 가치있는 환경정책을 찾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월 한달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공모결과 총 27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3단계 심사(채택심사 및 1차·2차 창안등급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

※ 생활공감 환경정책: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안으로써 국민 생활 불

## 환경 뉴스

편을 덜어주고 국민행복을 위한 환경정책

“대형마트 장바구니 대여서비스”는 장바구니를 가져 오지 않은 고객에게 최소의 비용을 받고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사용 후 마트에 가져오면 환불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3개월간 일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대 열린다

환경부는 수도시설의 과잉·중복 투자, 지역간 용수 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광역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수도시설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3조 7천억원('06), 상수도 누적부채 1조 5천억원('06) 및 매년 5천억원 적자 발생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전남 지역 7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과 경북지역 5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울진, 영덕)이 최종 선정되었다.

2009년도에는 권역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통합운영 실행방안 마련 및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2010년부터 자치단체별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통합운영 및 이에 따른 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2개 권역의 ①노후 수도관 개량, ②지자체간 연결관망 신설 등 통합에 따른 시설개선에 2015년까지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천억원 규모로 추산(전남권 2천억원, 경북권 4천억원 추정)되며, 통합운영에 따른 투자가 진행되면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②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미 2, 3 산업단지에 오염폐수 유출차단 완충 저류시설 준공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구미 2, 3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에서의 유독물질 등 사고유출수와 오염물질을 많이 함유한 초기 우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미 2, 3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364억원을 투입하여 '05. 8월 착공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준공되었으며, 수질감시 모니터링시스템, 저류시설, 수문, 이송관로 등으로 구성되며 차단된 오염물질은 구미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개선 및 중·하류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작년 3월김천(주)코오롱유화의 페놀오염사고를 계기로 산업단지에 준하는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낙동강수계법을 개정('08. 12. 8 국회통과)하였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는 사고유출수 및 유독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여 상수원수의 안전한 공급은 물론 4대강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구미 1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가동중인 완충저류시설 : 함안 칠서, 진주 상평, 대구 달성, 대구 영색산업단지

## 세벽공사로 인한 배상금(10%) 가산 최초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강원도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13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강원 원주시 ○○동 주민 9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공사와 시공사인 ○○건설(주) 등 3개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터파기 공사시 78dB(A)로 나타나,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건물피해의 경우 노후화된 건물의 담장에 공사장의 토압과 진동이 일부 영향을 미쳐 담장의 기울기가 심해져 피해를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식시간대(아침 05:00~08:00, 저녁 18:00~22:00)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작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하는 등 남은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동북아 환경논의의 장, 제1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지난해 12월 2일 제주도에서 한·중·일 환경장관들이 직접 만나 3국의 환경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1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0)」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으로서, 역내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교체해 오고 있다.

이번 TEMM회의에서는 3국의 최근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탄소사회구축, 황사, 화학물질관리, 환경보건정책, 전기전자폐기물, 일성성 오염물질 등 지구 및 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 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2009년 대내외 경제전망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난해 12월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2009년 대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4.2%보다 1%포인트 낮은 3.2%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 경기부양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나아지는 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응 전략에 대해 오 원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대비한 감량경영, 구조조정 등의 비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금융위기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시장과 품목에 집중하는 시장 차별화 전략을 통한 수출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전망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에도 내수부진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로존·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 본격화, 중국·인도 등 신흥국으로 경기둔화 확산으로 내년 세계경제는 둔화될 것"이라고 요약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의 전제조건인 미국 주택경기는 하반기부터 안정을 찾아가며, 세계경제의 둔화폭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 수출의존형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내수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주는 감세와 재정지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균 국제금융센터 부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글로벌 신용경색이 美 주택경기 침체 지속, 카드채 등 다른 신용시장으로 확산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시장도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종원 한국경제학회회장(성균관대 교수)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150 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금년 경제전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제15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3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5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SK네트웍스(주)(대기업부문)와 대지금융(주)(중소기업부문)이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



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현대오일뱅크(주), 대한해운(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주)엘아이케이21 등 4개 기업이 국무총리상(금상)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HSBC은행, (주)태영테크, 동의기전, (주)루키스 등 5개 기업이 지식경제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모범적인 최고경영인에게 주는 '최우수 CEO상'은 대한해운(주) 이진방 회장에게 돌아갔다.

대기업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SK네트웍스(주)는 2003년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워크아웃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손꼽힐 만큼 성공적인 경영정상화를 이뤘다.

또 신규 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화를 앞당기면서 올해 매출액이 22조6천억원, 영업이익이 약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회는 "2007년말 기준, 국내기업 중 매출액 6위, 당기순이익 18위 및 포춘 글로벌 500(순위 438위)에 포함되는 글로벌 마케팅 컴퍼니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한때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놓였던 회사가 이 날의 영광을 안은 데는 '성장과 돌파전략', '시스템 경영 고도화', '신명과 열정의 조직문화' 등의 경영전략이 주효했다"고 수상비결을 소개했다.